

01 교회소식

무지개에 담긴 의미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교회와 지난 17년간 아름다운 무지개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섬세하신 사랑.

02 생명의 말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각 지파들은 각자의 믿음과 능력대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갔다.

03 기획특집

구원의 테두리

복음을 듣고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 교회에 다닌다 해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살펴본다.

04 간증

“참 소망과 확신을 주는 교회~”

참된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는 류명순 권사와 참된 교회임을 깨달아 온 가족이 등록한 케냐 피터 성도의 간증.

만민뉴스

제685호 2015년 5월 10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해 주변의 희한하고 기이한 무지개를 보셨나요?

영의 공간을 이해하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원형 무지개



1 1998.5.15. 만민중앙교회 상공



2 2006.2.21. 풍고연합대성회 선교팀 탑승 비행기 밖 (Nikon D2X, Fisheye 10.5mm, 1/250, f/11, ISO 100)



3 2010.4.14. 만민중앙교회 상공 (Nikon D2X, Fisheye 10.5mm, 1/1000, f/13, ISO 200)

무지개는 물과 빛과 공기가 만들어내는 예술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공기 중의 물방울에 의해 태양광선이 반사·굴절돼 일곱 빛깔의 원호로 비가 온 직후에 태양의 반대쪽에 나타난다(창 9:13). 그러나 많은 성도가 맑은 날에 해 주변을 두른 희한하고 기이한 무지개를 자주 목격하고 있다.

1998년 5월 15일, 수많은 성도가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린 후 만민중앙교회 상공 해 주변에 커다란 원형 무지개가 떠 있는 것을 보았다(사진①). 그런데 특이한 것은 비와 상관없는 화창한 날씨였고, 무지개가 태양 반대편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태양을 원형으로 둘러싼 형태라는 사실이다.

이후 우리 교회와 1만여 자·협력교회 상공에 수시로 기이하고 희한한 무지개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 세계 곳곳에서 개최된 연합대성회, 목회자 세미나, 손수건 집회, 그리고 만민 하계수련회 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사나 선교가 이뤄지는 현장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자주 출현한다(사진 ④⑤⑦). 이는 성도들이 목격하는 무지개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4장 3절을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러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했다. 사람 사이에 어떤 중대한 약속을 할 때 반지 같은 증표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 보좌를 두르고 있는 무지개를 약속의 증표로 보여 주시는 것이다.

이러한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는 형태에 따라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의 원형 무지개는 ‘너와 나 곧 모두가 진리 안에서 하나’임을 내포하며, 이중, 삼중, 사중의 원형 무지개는 하늘이 분리돼 있음을 보여 주어 영의 공간을 이해하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여러 가지 대칭 무지개는 ‘하나님의 하나의 공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뤄지게 된다’ 곧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서 모든 것이 베풀어진다는 약속의 의미를 담고 있다. 마치 해를 다이아몬드로 박은 듯한 반지 모양의 무지개(사진③)는 자연재해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복잡다단하고 어둡이

질은 이 세상에 밝고 참된 빛을 비추어 하나님께서 만민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축복의 언약이 성취된다는 표증으로 보여 주신 것이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풍고연합대성회 후 선교팀에게 희한한 무지개(사진②)를 보여 주셔서 성회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는지 알려 주셨으며, 이 밖에도 해외 성회 시마다 어김 없이 무지개로 축복해 주셨다.

무안만민교회 앞 바닷가의 잔물이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단물이 된 무안단물터(출 15:25)에는 원형 무지개, 반지 모양의 무지개, 대칭 무지개 등이 복합적인 형태(사진 ⑥)로 나타나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나타내 주셨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기이하고 희한한 무지개를 통해 만민 성도들은 영적인 믿음이 날로 더해지고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소망하며 더욱 충성하고 있다. 지난 17년간 아름다운 무지개로 하늘을 수놓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린다.



4 2001.10.1. 필리핀연합대성회 선교팀 탑승 비행기 안



5 2002.7.29. 온두라스연합대성회 선교팀 탑승 비행기 밖



6 2011.1.27. 무안만민교회 (Nikon D80, Fisheye 10.5mm, 1/500, f/11, ISO 200)



7 2014.5.22. 일본 동경만민교회 상공



당회장 이재록 목사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14~15)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모세처럼 간절한 당부의 말을 남깁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두령들,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 하나님을 변함없이 가까이하며 사랑하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셨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이방인들을 가까이하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리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이를 기억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가까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교훈을 머리 된 사람에게 배운 여호수아는 온 백성을 모으고 장엄한 결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약속을 이루신 신실하신 분이요, 강대한 애굽과 가나안 일곱 족속을 물리치신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수 24:15) 합니다. 이스라엘이 정녕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우상을 버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지를 결단하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확고한 선언에 이스라엘 백성 역시 “우리로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라고 즉각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지요(수 24:18). 여호수아는 거듭 확인한 후에 그들이 지켜야 할 계명을 다시 가르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일백십 세의 나이로 뜨거운 열정과 믿음의 삶을 조용히 마감합니다.

2 불순종으로 고난을 당하는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유언을 남기고 죽은 후에도 가나안의 정복은 계속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없는 이스라엘은 오래지 않아 믿음의 허점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요셉 자손들은 가나안 거민들을 다 몰아

내지 못하고, 유다 지파도 사사기 1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하신고로 그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매”라고 했으며, 스블론과 아셀, 납달리, 단 지파들도 가나안 사람들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가나안 거민들의 저항이 너무 강해 이기지 못한 경우도 있으며, 이길 힘이 있어도 열심을 내보이지 않고 이런저런 핑계로 대부분의 지파가 가나안 거민들을 온전히 몰아내지 않고 곳곳에 남겨 두었지요. 그러나 이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며, 이러한 불순종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가지와 고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방 족속들과 섞여 살기를 결코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 쉽게 우상 숭배에 미혹돼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죽어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자 이스라엘은 이방 족속들과 친근히 하여 결혼하기도 하고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여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외면하셨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끊임없이 시험 환난에 시달리는 고통의 역사가 돼 버렸지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비극적인 것은 단 지파의 경우로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에서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쫓겨났습니다(삿 1:34~35).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믿음으로 취하지 못한 단 지파는 더 쉬운 땅을 찾아 자신들의 기업으로 삼았는데 그들은 처음 그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새긴 우상을 세워 섬기기 시작했고, 수백 년 후에는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단 지파의 땅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움으로 온 이스라엘 중에서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인해 이스라엘은 이방인에게 멸망당하고, 단 지파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열두 지파 중에서 이름이 빠지고 맙니다(계 7장).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믿음으로 취하지 못하고 약속을 저

버린 나약한 신앙은 심한 우상 숭배의 패역함으로까지 연결됐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조차 잃어버린 것입니다.

3. 변함없는 중심으로 순종하는 자녀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제까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모세와 함께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로부터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지요. 이후로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다윗 왕이나 여호사밧 왕의 시대와 같이 왕과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 계명을 지킬 때는 모든 열방 중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악행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외면하심으로 전쟁과 기근 등으로 큰 어려움을 당해야 했지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하나님의 모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후반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그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유혹이나 핍박에도 상관 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녀들을 얻기 위해 오늘날도 인간을 경각하고 계십니다. 이런 자녀들을 찾아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마음껏 축복을 주시고자 지금도 변함없이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여호수아의 믿음에 의지했으나 나중에는 자신들의 믿음으로 스스로 기업을 취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행군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무장하며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젓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마침내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 중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의 각 지파는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에 남아 있는 가나안 거민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자신들의 기업으로 확보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 일은 각 지파가 믿음으로 이뤄내야 합니다. 대략적으로 각 지파들이 기업을 취해 나가는 과정과 결과를 살펴보면 가나안 정복사 시리즈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1.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언약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각 지파들은 각자의 믿음과 능력대로 자신들의 기업을 침포함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많은 세월이 흘렀고, 아직 모든 기업을 다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호수아는 이 땅을 떠날 때가 된 것을 알았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믿음으로 행할 것을 다짐하게 할 필요성을 느꼈지요.

아직 이스라엘 전체의 믿음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와 함께할 때는 순종하고 믿음을 내보였지만 그들의 믿음만으로 싸우라 할 때는 두려움과 부정적인 고백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경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팀(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월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는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구원의 테두리 밖에 있는 사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혹여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겠지.' 하며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녀들에게
 "성령을 소멸치 말며"(살전 5:19),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빌 2:12) 말씀하신다.
 과연 구원의 테두리 밖에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혹여 자신이 해당되는 분야가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에 이르기를 바란다.

1 복음을 듣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경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말씀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누구도 구세주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했다.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다 해도 지옥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은 아니므로 신속히 주님을 영접해 구원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2 교회에 다니지만 믿음 없이 억지로, 또는 자기 유익을 위해 다니는 경우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아내, 부모, 자녀의 강권에 의해 믿음 없이 교회에 다니거나, 자기 유익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다.

대부분의 경우,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설교 말씀이 진실임에도 의심하고 자기 생각이나 지식, 세상 이론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잘못됐다고 판단, 정죄한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성령을 받지 못하니 영적인 믿음을 가질 수 없다. 오히려 '사단의 회를 만들어 교회를 어렵게 하거나 하나님 나라를 훼방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사교의 장' 또는 심리적 안정을 취하는 곳으로 생각한다. 구원, 천국과 지옥, 성결 등 영적인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과의 사귀거나 사업, 명예 같은 세상에만 관심을 둔다.

또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축복받고자 돈벌이를 목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있다. 기독교를 여러 종교 중 하나로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단순히 종교 활동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들은 교회에 다니는 목적을 구원과 천국에 두지 않고 이 땅의 축복된 삶에만 두고 있기에 아무리 교회에 다닌다 해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소유할 수 없다.

3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거나 가졌다가 잃어버리는 경우

오늘날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나름대로 천국과 지옥도 믿는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다만 '교회에 다니면 구원받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한다. 대표적인 예로, 많은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한 번 성령을 받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구습을 좇아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된다. 하지만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다. 즉 자신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죄들을 발견해 하나씩 버려 나가는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완전하시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완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죄를 지으며 살아왔기에 죄를 버려야 한다는 개념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든지 행치 아니하든지 구원과 관련된다고 생각하거나, 믿음의 분량에 따라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천국 처소와 상급이 다르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요일 2:15).

이처럼 성경 곳곳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 주는 인도자를 만나기도 어렵거니와 스스로 진리를 깨닫거나 믿기는 더 더욱 어렵다. 그래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영원한 천국보다는 이 땅의 삶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아무리 진리를 가르쳐 주어도 영적 체험이 없는 마음 중심에서 믿기 어렵다. 천국과 지옥이 마음에 와 닿지 않으니 영적인 믿음이 자라지 않고 그 믿음마저 잃어버리기 쉬우며 시험 환난이라도 닥치면 너무 쉽게 시험에 들고 구원에서 멀어진다. 진리를 왜곡해 잘못 가르치는 경우는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4 믿음이 있고 진리를 안다 하면서도 다시 죄를 짓고 구원에서 멀어지는 경우

이 경우는 진리를 잘 몰라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상황과는 다르다. 구원의 선도 분명히 알고 영적인 체험도 있는데 다시 죄를 지어 구원에서 멀어진 경우이다(히 6:4-6, 10:26).

어떤 사람은 주님을 영접한 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가르치는 사명까지 감당하던 중, 큰 죄를 범해 충만함을 잃거나 조금씩 다시 세상을 취하면서 그 마음이 서서히 식어가게 된다. 회개하지도 않은 채 이 상태에 머무니 다시금 죄악에 물들어서 결국 구원받을 믿음마저 잃고 만다. 곧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깨닫고 성령의 능력으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루기까지 마음을 진리로 지켜야 한다. 죄를 피흘리기까지 싸워 버리지 않으면 다시금 구습을 좇아 세상을 취하거나 범죄할 수 있기 때문이다.

Thank You

5월, 감사의 달
2015.5.10~5.16

우리의 영혼을 세롭게 하는 방송 GCN

이재욱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창세기 강해 58-62
- 사랑 1-3
- 심고 거두는 법칙 1
- 천국 4-10
- 3차 영혼육 11-14
- 의와 인과 신 1
- 우리가 바라볼 것
- 육체의 결여 1-5
- 의와 틀을 깨뜨리자 1-2
- 예언 1
- 요한계시록 강해 72
- 한신의 의미
-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1-4

GCN TV설교

- 온전한 심일조와 한물 3 (이수진 목사)
- 천은과 같은 말 (이미영 목사)
- 99.99 (2) (이미경 목사)
- 영의 눈, 육의 눈 (이희선 목사)
- 믿음의 분량 1 (신동초 목사)
- 탕자의 비유 3 (정구영 목사)
- 경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1 (김수정 목사)

예능 프로그램

- 알콩달콩 어여쁜 율동 36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6
- English 9
- 옛날 옛적에 11
- 즐거운 요리 23
- 내 마음의 찬양 11
- 흥겨운 소리 1
- 창조와 과학 8
- 모두 드려요 28
- 뷰티풀라이프 5

해외성회 프로그램

- 이스라엘 연합대성회 1
- 회상 8

GCN HD 채널
kt olleh tv 882번

위성, 인터넷, 인터넷TV방송 A/S 문의 1577-2073

“살 소망이 없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해요”

류명순 권사 (54세, 2대대 12교구)

저는 심히 유교적인 집안에서 병약하게 태어나 죽음의 고비를 몇 차례나 넘겨야 했기에 아홉 살이 되어서 호적에 올랐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후에도 결석이 많아 수업일수를 간신히 채우고 졸업했지요. 학창시절, 체육 시간에는 늘 교실을 지키는 당번이었고, 뛰노는 친구들이 무척 부러웠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직장생활을 할 때는 소화제 없이는 식사를 못했습니다.

1985년 결혼해서는 아홉 식구의 만머느리로 버거운 신혼생활이 시작됐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시동생들의 도시락을 챙기며 아침 일찍부터 온종일 일하니 지치고 힘들었지요. 결국 시부모님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면서 불면증과 우울증이 찾아와 세 차례나 자살을 시도할 정도였습니다.

다행히 1988년 8월, 남편의 직장 동료들을 통해 만민중앙교회에 등록하고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며 참 평안과 샘솟는 기쁨을 누리게 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당회장님의 기도로 불면증과 우울증을 치료받았으며, 빈혈과 소화장애는 물론 심장과 신장이 좋지 않아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던 증세까지 사라졌지요. 할렐루야!

그 다음 해부터 구역장의 사명이 주어졌고, 이어 조장, 지역장의 사명도 감당하며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시부모님을 잘 섬기고자 힘쓰며 시동생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자 기도를 쌓았더니 때가 이르매 온 가족

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여 년간 열심히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충성한다 했지



사랑하는 시어머니(노오덕 권사)와 남편(진교성 장로), 아들 내외(진한영, 최유리 집사)와 함께한 류명순 권사

만 2011년 7월, 전국 기관장교육을 통해 영적인 충성이 아니었음을 마음 깊이 깨달았습니다. 마음의 हाल레 곧 주님의 마음을 닦는 일에는 소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의 비진리를 발견해 버리기 위해 노력했으며, 특히 변경함에 대해 매일 체크해 보며 금식과 기도에도 힘썼습니다. 더불어 성경노트와 감사노트를 만들어 메모하면서 비진리의 마음과 생각을 버리고 감사의 향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지요.

2013년 11월, 시아버님이 소천해 혼자 지내시는 시어

머님을 저희 집으로 모셨는데 시어머님의 말씀을 들으며 불편해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철저히 회개하며 영적인 사랑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던 중, ‘시어머니 덕분에 남편을 만났고, 남편 덕분에 결국 교회와 목자를 만나 영혼의 치유와 각색 질병을 치료받지 않았느냐’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됐지요. 이후 저는 감사가 넘치고 시어머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져 기쁨으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2014년 4월에는 영의 마음을 이루는 축복을 받았고, 그 뒤 친정 아버님이 구원받는 축복이 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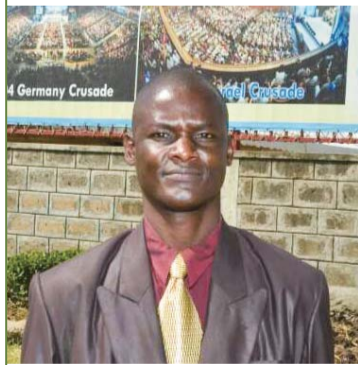
고흥 류씨로서 큰 제를 올릴 때에 제복과 샅갓을 착용하고 제사를 주관하시던 친정아버님은 병상에서 당회장님의 『십자가의 도』 책자와 설교 테이프를 통해 믿음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 백 번, 천 번 잘못했습니다. 잘 몰랐

습니다. 저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싶습니다.”라고 회개하고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은 후 통증 없이 지내시다가 영안이 열려 천국을 보고 소천하신 것입니다.

저는 올해 여지역장연합회 총무의 사명을 맡았습니다.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지역 식구들과 함께 행복하게 영혼 구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과 삶의 무게로 살 소망이 없던 저를 찾아와 주시고 영육 간에 축복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성결과 회개를 가르치는 참된 교회를 만났습니다”

칼 피터 성도 (54세, 케냐 나이로비만민교회)



경찰에 재직 중이던 저는 1994년부터 당시 아프리카에서 목회자 세미나, 집회 등 활발하게 선교사역을 하시는 정명호 목사님(케냐 나이로비만민교회

담임)과 정 목사님이 속한 한국 만민중앙교회에 대해 비방하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마침 1998년 8월부터 업무 차 한국에 파견받아 몇 차례 만민중앙교회를 방문했지요. 그리고 예배와 설교를 비롯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신앙서적, 교회 신문 등의 출판물을 하나하나 보면서 어떤 교회인지 살펴보았습니다. 1999년 5월에는 ‘2주 연속 특별 부흥성회’에 이틀간 참석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많은 사람이 치료받는 놀라운 광경을 목도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 교회가 거짓 없이 성경적이고 성령에 의해 인도받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2000년에는 바닷가의 잔물결이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로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뀌어서 권능을 나타낸다는 소식을 듣고, 그 현자인 전라

남도 무안단물터에도 직접 가보았지요. 그곳에서 한 성도를 만났는데 자신이 어떻게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암이 치료됐는지와 많은 사람이 치료받은 사례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마침내 만민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교회라는 것과 만민교회를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부인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지요. 이후로 정명호 목사님의 설교를 꾸준히 듣고, 손수건 집회와 나이로비만민교회의 각종 행사에 참석하면서 만민교회는 천국의 길로 바르게 인도하는 성결과 회개를 가르치는 참된 교회임을 더욱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0월에는 온 가족이 나이로비만민교회에 등록했지요. 제가 경찰로서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작한 일이 구원과 영생의 축복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계기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케냐를 위해 사랑으로 헌신하시는 정명호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자매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168 ☎070-8223-4191~4, 010-4182-4194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암대로 103, 백성 5D 7층 ☎051)326-1537, 010-7213-6207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3771-7970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동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암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34 3층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안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도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백률로 76번길 45-1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대로 409-15 3층 ☎054)281-2468, 010-9773-701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광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3층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3층)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성북구 광학안로 22, 연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8927-2073
- 경인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7133-9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탈로 95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우빌딩 지하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도로 112, 5층 ☎010-7133-9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8331-1136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충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